

# 충청남도 홍성군의 인지도·호감도 상승전략

신희석

청운대학교 보령머드RIS사업단 연구원

e-mail : shsvision@naver.com

## A Study of Upgrade Strategy Based on Recognition and Favorable Impression

### - Focused on Chungchengnam-do Hongseonggun

Hee-Suk Shin  
Boryeongmud RIS

#### 요 약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충청남도 홍성군, 그러나 홍성하면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없다. 홍성의 한우는 황성의 한우와 비교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지리적으로 가까운슬로시티 예산군과 머드의 고장 보령시에 비해서도 인지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감성을 울리는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스포츠·방송·영화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를 내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마케팅전략인 ‘스타마케팅’을 통하여 홍성군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 1. 서론

2011년 농촌진흥청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홍성군은 어느 분야에서도 거론되지 못했다. 홍성군만의 특색이나 색깔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성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홍성의 주력제품인 한우는 강원도 황성 한우에 고전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슬로시티 예산이나, 머드의 고장 보령에 비해서도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홍성군의 현재 인지도 및 호감도 상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으로 스토리텔링과 스타마케팅을 제시하였다.

인지도 뿐 아니라 호감도 또한 높여 사람들이 홍성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이론적 고찰

##### 2.1 인지도의 정의

인지도(認知度)란, 쉽게 말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인지도(awareness)를 브랜드와 연관시켜보면 소비자

가 특정 브랜드를 상기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비자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와 친근감을 형성하고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와 관련해서는 주로 팬덤, 스타송배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스타와 팬 간의 감정적 애착(attachment)와 관련이 있으며 만족, 충성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브랜드와 유사하다(양승훈, 2008)

##### 2.2 호감도의 정의

호감도(好感度)는 한자 그대로를 직역하면 ‘좋아하는 느낌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호감도(liking)란 일원모델의 입장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적 반응(evaluative reaction)의 관점에서 개인이 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찬성 또는 반대로 느끼는 정도라고 한다(Fishbein & Middlestadt, 1995).

##### 2.3 홍성군의 일반현황

홍성군은 옛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한 군이다. 지리적으로는 충남서해안의 중심지로 동북쪽에는 예산군, 서북쪽은 서산시, 동쪽에는 청양군, 남쪽에는 보

령시가 접하였다. 행정구역은 2읍 9면, 141개 법정리로 편제되어 있으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인구는 약 88,001명이다[그림 1].



[그림 1] 홍성군 행정구역지도

홍성군의 브랜드 슬로건 [그림 2]는 사람, 미소, 웃음을 연상시키는 모티브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이 살아 숨 쉬는 홍성의 모습과 홍성인의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글자의 부분적 요소를 디자인화하여 감성적이며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홍성군의 브랜드 슬로건

홍성군의 남쪽에는 문화행사에서 1위를 차지한 머드의 메카 보령군이 위치해 있으며, 동북쪽에는 슬로시티 지정으로 최근 더욱 인지도가 상승한 예산군이 위치하고 있어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홍성군의 인지도 상승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 3. 인지도, 호감도 상승을 위한 2S전략

#### 3.1 홍성군의 역사적 인물을 재구현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엔센은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21C는 감성과 이야기의 시대라고 하였다. 이는 즉,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스토리의 가장 큰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신화, 역사, 전설인데 홍성군은 많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

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백야 김좌진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사육신중 한명인 성삼문, 최영장군 등으로 이 많은 스토리텔링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란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교육·문화 보존·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써, 또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써 공유되어 왔다. 스토리텔링에는 줄거리(plot), 캐릭터, 그리고 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양대 관광학부 손대현 명예교수는 storytelling은 story(이야기) + tell(말하는 방식) + ing(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즉, 스토리텔링은 어떠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알기 쉽도록 듣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말하는 것이다.

한 예로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동상에 그치지 말고 이 김좌진동상에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군만의 무궁무진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재창조하여 고품격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홍성군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관광이나 제품구매 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림 3] 홍성역 부근에 위치한 김좌진장군 동상

#### 3.2 스타마케팅(Star marketing)

스타마케팅은 스타의 인기를 토대로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스타마케팅이란 스타의 대중적 인기를 상품, 서비스, 이벤트, 사회봉사 활동에 연계한 마케팅 전략이며 스타가 팬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카리스마 즉, 상업적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이며 스타와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허행량, 2002). 스타마케팅 역시 스타의 인지도, 호감도 그리고 구매(영화, 드라마, 스타체험상품)의 선순환 과정 속에서 스타가 추천하는 상품과 연계 시키는 것이라

**참고문헌**

- [1] 양승훈(2008). 스타의 관광지 지지가 팬을 관광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형구축,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 허행량(2002). 『스타마케팅』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3] Fishbein, M., Middlestadt, S.(1995),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4 NO.2 pp181-202
- [4] <http://tour.hongseong.go.kr>

고 볼 수 있다(양승훈, 2008). 이와 같이 스타 마케팅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다.

현재 홍성군은 마라토너 이봉주를 홍성군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스포츠 스타마케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멈추지 말고 좀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들을 활용한 스타마케팅을 구현하여 홍성군의 인지도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 4].

특히, 스타의 인지도와 인기만을 활용하는 단기적인 관점의 스타마케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마케팅 그리고 여기에 스타의 진심이 더해져야 성공적인 스타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홍성군 홍보대사로 임명된 마라토너 이봉주

**4. 결론**

현재 홍성군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머드산업의 메카인 보령군과 국제슬로시티 예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이 한우로 유명한 황성군에 비해서도 홍성군의 인지도가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토리텔링과 스타마케팅을 통하여 홍성군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홍성군은 충남도청이전과 함께 마라토너 이봉주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그 인지도 향상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홍보대사 임명에 그치지 말고 스토리텔링과 스타마케팅을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하여 홍성군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군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2S(스토리텔링과 스타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결국 이를 통해 홍성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